

ETIAK 소식

정보화촉진법 조속 제정 촉구

본회는 (회장 : 구자학)는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가 공동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촉진 기본법」 제정과 관련하여 지난 10월8일 금성사, 삼성전자, 대우통신 등 관련업계와 산업연구원, 전자부품연구소 등 정보산업계 및 관련기관이 회의를 갖고 동법의 조속한 입법의 추진과 육성시책의 보완 등을 정부 관련부처에 건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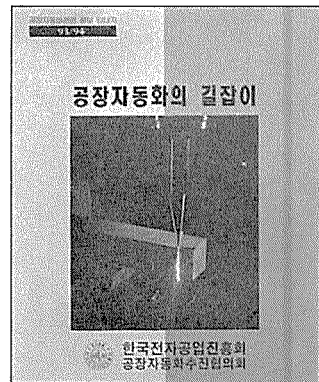
동회의에서 본회와 관련 업계 등은 동법안은 국가사회 각분야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산업을 육성시킴은 물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데 매우 필요하며 정보산업 육성 시책의 종합 조정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 수 있게 되었다는 데 크게 환영의 뜻을 나타내었으며 정보화 및 기술개발에 활기를 불어넣고 근로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했다.

동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보화 촉진을 위해 각부문별 정보화에 앞서 정보화 기반구조를 구축하여야 하며 정보화 수요가 가장 큰 가정 및 개인에 대한 정보화 지원시책도 강구하여야 하고 제4조~제7조의 정보화를 촉진함에 있어 국산기기 및 국내에서 개발된 기술을 우선 사용토록 법에 명시하여야 하며 제20조 (정보화 촉진 정책 심의회의 설치 등)의 정책심의회는 비경제부처의 정보화 촉진을 감안, 그 지위를 격상시켜야 하며 정책심의회에 기술자문 등을 위

해 별도로 상설기구를 설치, 운영할 것과 정보화 예산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여 예산 규모를 확대, 구체화시키도록 하고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혁신이므로 벤처 캐피탈을 비롯한 민간 정보통신업계의 육성과 구체적인 기술개발 환경의 조성이 필요, 구체적인 수행 기관을 지정하는 등 기술개발 부문이 보다 구체적이고 지원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 등을 건의 하였다.

이와 더불어 동법안은 우리나라 21세기에 정보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각부처가 협력하여 법제정 시기가 지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동법의 제정을 계기로 현재 침체된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얻어 재도약의 기반이 마련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공장자동화 관련정보 체계적으로 정리, 종합책자로 발간



본회의 공장자동화추진협의회(회장 : 이대원 삼성항공(주) 대표)는 제조업계의 공장자동화 추진의지가 날로 확산 되어가고 있음에 따라 공장자동화와 관련한 정보제공 책자인 「93/94 공장자동화의 길잡이」를 발간, 제조업계에 무료배포하고 있어 업계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동책자는 지난 5월부터 자료수집을 시작하여 10월 4일 발간이 되었는데, 주요 수록내용으로는 공장자동화 추진절차 및 사전검토사항, 효과분석 등의 자동화 추진방법, 자동화관련 자금지원, 세제지원 등 지원시책관련 정보, 자동화관련 교육, 연수기관 및 기술지원 기관 안내 등의 정보란 수록, 부록으로는 자동화기기 시스템 및 관련업체 명부, 외화표시 원화대출 대상 국산기계설비 목록, 관련감면 대상 공장자동화기기 목록 등으로 제조업체가 공장자동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정보를 거의 총망라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종합안내서인데, 특히 이번 책자는 정보의 다양성과 체계성을 살려 내용면과 양적인면 모두에서 업계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였다.

한편, 공장자동화추진협의회는 '91년 7월 삼성항공 등 공장자동화시스템 및 관련업체가 중심이 되어 발족된 협의체로써 그동안 제조업계의 공장자동화촉진과 자동화기기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업을 벌여왔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공장자동화 무료 현지자문사업, 공장자동화 관련실태조사 및 정책건의 사업, 공장자동화관련 책자발간 보급 등 정보제공 사업, 국내의 우수공장 견학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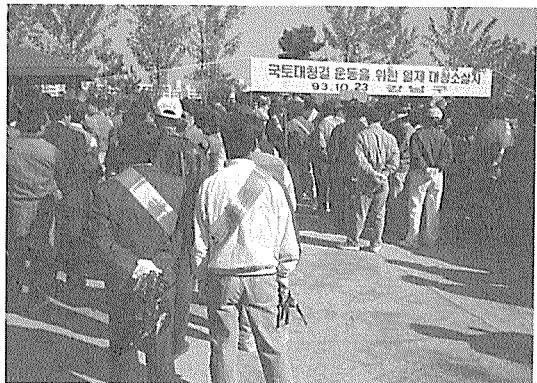
특히 올 10월이후 10여개사에 대한 자동화 현지자문을 통해 실질적인 자동화 추진상에 도움을 줄 예정이며 국내업체간 상호공장 견학 및 우수공장 견학 사업과 유럽지역 전자업체 공장견학 및 국제 자동화 전시회에 참관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저작권법중 사적복제보상금제 도입 철회

본회(회장 : 구자학)와, 한국광학기기협회(회장 : 홍채용), 가전산업협의회(회장 : 이현조), 한국자기미디어산업협의회(회장 : 한형수) 등 관련 4개 단체와 삼성전자(사장 : 김광호) 등 14개 제조업체는 문화체육부측에서 강행하고 있는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도입코자 하는 사적복제 보상금 제도에 대해 제도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도입한다해도 아직 우리나라는 도입의 시기가 아니며, 특히 우리 관련 제조업체가 가장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는 점등을 들어 동제도 도입을 즉각 철회할 것을 3차에 걸쳐 관계기관에 강력히 건의한 바 있다.

이에따라 문화체육부는 저작권법 개정(안)중 사적복제 보상금제도 제27조 2를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토대청결 운동 행사 참가



본회는 지난 10월 23일 수서지구 대모산 자연학습장에서 열린 국토대청결운동 행사에 전직원이 참가했다.

전국토 청결 주간을 맞이하여 열린 이날 행사는 산과 하천의 오물 등 구석구석에 널려 있는 각종 쓰레기를 수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전국민의 참여를 통한 의식개혁의 하나로 쓰레기 줄이기, 안버리기, 깨끗이 치우기 등 3대 운동으로 설정 전국민 확산운동으로 널리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학계·연구소 보유기술 총27개 과제 이전 가능



학계 및 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개발기술의 업계이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보유중인 기술중 27개 기술은 이전이 가능

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가 전국의 전자관련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계·연구소의 개발 및 보유기술 전자업계 이전」 조사자료에 따르면 전자업계로 이전이 가능한 기술은 17개 대학 및 연구소에서 보유중인 디지털 무선통신 시스템 등 27개 과제로, 이중 20개기술은 금년중에 즉시 이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중소기업에 이전이 적합한 기술은 20개이며 유상이전 14개, 무상이전 7개 등이다.

27개 이전가능 기술중 마이크로 프로세서 칩 세트 관련기술과 자동화 및 제어기기 분야가 각각 5개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기기 분야와 컴퓨터이용기술이 각각 3개 과제로 조사됐다.

한편 본회는 학계 및 연구소의 보유기술 이전을 위해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를 접수중에 있다. <자세한 내용은 35 Page 참조>

한·EC 전자산업 포럼 개최

1. 목적

- 한·EC 전자분야 산업협력 증대
- 한·EC 전자업체간 사업기회 확대 및 전략적 제휴 모색
- 한국전자산업에 대한 대외 인식 제고

2. 일자 : '93. 12. 1(수)~3(금)

3. 장소 : 상공회의소(회의실)

4. 주관 : 한국전자공업진흥회(EIAK) EC 집행위원회(Commission)

5. 일정 : 12월 1일(수) 09:30~16:30

가. 기술협의 및 개별상담

—가전, 산전, 부품 등 분야별 양국산업 소개

—분야별 합작, 기술이전 부품수급 등 관 심사항 소개

—개별면담 및 개별공장 방문

12월 2일(목) 09:30~16:30

나. 산업 시찰(EC 업계 대표)

다. 전자산업 세미나

발표내용	연사
① EC의 대외 통상 정책	질아누이 주한 EC 대표부 대사
② EC의 시험검사 및 인증제도	유럽 전자표준화 기구 Dr. Jacky Humbeack
③ EC의 정보산업 육성방안	EC집행위, Dr. Galway Johnson
④ 한국의 대외 무역 및 산업정책	상공자원부 이회범 전자정보공 업국장
⑤ 한국의 시험검사, 인증, 라벨링 제도	공업진흥청 서창수 국제표준과장
⑥ 한국의 전자산업 시장현황 및 성장 유망분야	삼성전자(주) 강진구 회장

12월 3일(금)